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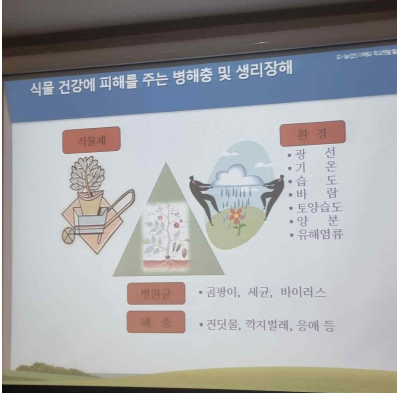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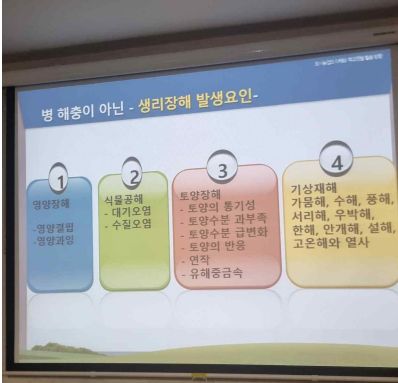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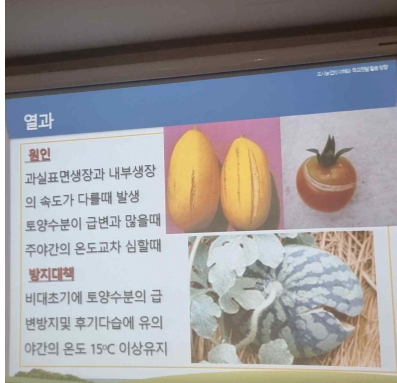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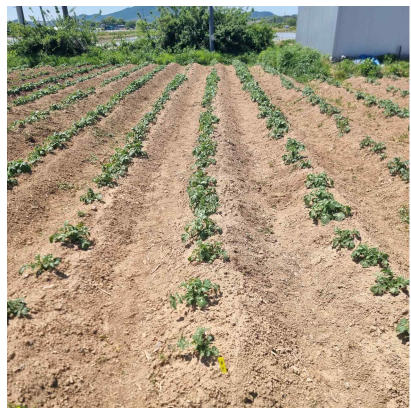



2026년 제19기 김포도시농부학교 경작 보고서

조/성명	4조 / 조혜정	날짜	5월 7일 목요일
강사	조기진	시간	19:00 ~ 21:00
경작 (강의) 내용	<p>■ 제목: 생태 병해충 진단과 예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무심코 부르는 병충해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오염된 토양 ② 발표되지 않은 비료 / 퇴비 ③ 무분별한 섞어짓기 ④ 일방적인 영양투입 ⑤ 지나친 수분 공급 ⑥ 기후에 맞지 않은 작물 선택 ⑦ 외부 유입경로 차단 (물, 인간, 바람, 황사 등) ⑧ 씨앗, 모종 ⑨ 그 외 ⑩ 게으른 농부 (무관심) - 제충국 - 모기향 재료(밭에 심으면 좋음) - 녹두 - 진딧물이 좋아해서 한 칸에 심어 재물로 바치면 좋음. - 흙토랑 (토양 검사한 땅 나눔) - 봉산 + 삶은 노른자, 소보로 빵 → 개미 박멸 - 김 빠진 맥주, 젖은 신문지 - 민달팽이 - 재를 뿌리고 뒤집으면 월동하는 벌레 없앨 수 있다. - 막걸리 - 인산 풍부, 발표해서 물에 희석해서 사용. - 깻묵(N), 쌀겨(P), 재(K) - 팜모닝(농진청 운영 app) - 대동커넥트 app - 김장 - 90일 배추 - 일반 배추 - 60일 배추 		
사진			
			

2026년 제19기 김포도시농부학교 경작 보고서

조/성명	4조 / 조혜정	날짜	5월 9일 토요일
강사	박재화	시간	8:00 ~ 12:00
경작 (강의)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텃밭 만들기, 모종심기 - 공동 밭에 땅콩 식재 - 개인 밭에 고추(매운 것, 안 매운 것), 토마토, 방울토마토, 깻잎, 대파, 가지 심음. - 심기 전에 지지대 세울 것까지 고려하여 나눠 심고, 40cm 이상의 간격을 주어 성장 후에 방해 되지 않도록 함. - 이렇게 썰렁한 밭이 가득찰 수 있다는 게 신기함. - 풀멀칭. 조장님과 최 선생님이 풀을 한 아름씩 베어다 주셨는데 풀멀칭을 하려면 10cm 높이로 쌓아야 한다고 함. - 예쁘고 귀여운 이름표 말뚝이 딱 내 취향. 		
사진			
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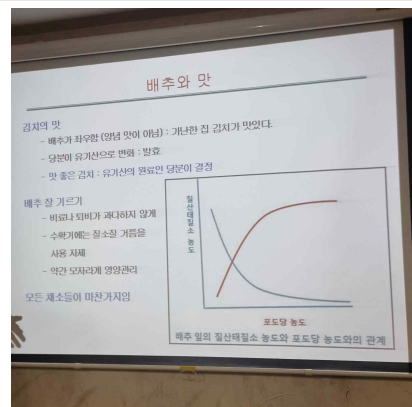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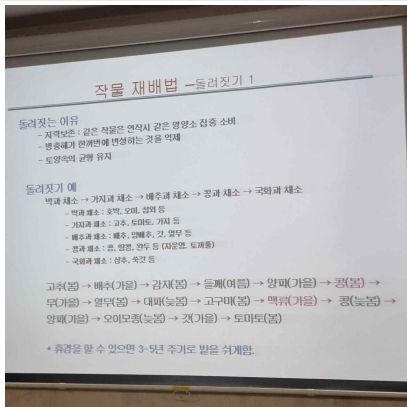
2026년 제19기 김포도시농부학교 경작 보고서

조/성명	4조 / 조혜정	날짜	5월 14일 목요일
강사	박원만	시간	19:00 ~ 22:00


경작
(강의)
내용

- 유기농 텃밭 가꾸기
- 1. 서로 어울리는 채소
 - 상추와 썩갓, 무와 배추, 콩밭에 옥수수, 토란밭에 상추(봄)
 - 보완적으로 자랄 수 있는 조합
- 2. 씨앗의 특징
 - 호광성; 상추, 우엉, 삼잎 국화 (얇게 묻는다)
 - 호암성: 박과채소, 곰취, 산마늘, 눈개승마, 두메부추 등 대부분의 나물 (파종 후 낙엽 등으로 덮는다)
- 토양 분석; 농업기술센터에 의뢰

사진



2026년 제19기 김포도시농부학교 경작 보고서

조/성명	4조 / 조혜정	날짜	5월 16일 토요일
강사	권혜영 / 이종준	시간	8:00 ~ 12:00
경작 (강의)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텃밭에 유용한 원예식물, 예초기 알아보기 - 생전 처음 듣는 풀 이름이 참 많았다. 마지막에 이름을 맞추는 테스트가 있었는데 정말 단 하나도 모르겠다. - 5대 삼: 연삼, 사삼, 현삼, 인삼, 단삼 - 단삼은 고지혈증에 좋음. 붉은색은 심장에 좋음. 뿌리 식물은 3~4년이면 끝남. - 어수리: 노화방지, 관절염에 좋는데 음지, 습한 곳을 좋아함. - 두메부추(추천 작물): 알로에 느낌, 물을 자주 안 줘야 해서 게으른 농부에게 좋음. 알아서 잘 자람, 무릎 길이까지 자라는데 꽃이 예뻐. - 박하; 소화가 잘 되고 목에 좋음. 번식력이 강해 화분이나 텃밭 한쪽에 심는 것이 좋음. - 자소엽(차조기); 일본에서 매실 담을 때 함께 넣는 식물, 탈모에 좋음, 색 때문에 조경에도 사용. - 삼잎국화; 한번 심으면 알아서 번식하여 기르기 쉬움, 잡초 있는 곳에 심으면 애가 이김. 번식이 너무 잘 되니까 꽃을 많이 잘라주는 게 좋음. 		
사진			
			

2026년 제19기 김포도시농부학교 경작 보고서

조/성명	4조 / 조혜정	날짜	5월 23일 토요일
강사	이종준	시간	8:00 ~ 12:00
경작 (강의)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퇴비 만들기 실습(1차), 텃밭 관리 - 퇴비를 만들 때 높이 쌓는 이유; 60도 이상의 열이 발생해야 하는데 열의 발생 요소 중 하나가 압력. - 손으로 잡았을 때 물이 흐르지 않고 손자국이 남을 정도의 수분이 필요. 그보다 많은 수분이 있으면 발효가 아니고 썩음. - 질소질, 탄소질 번갈아가면서 쌓아 올린다. 음식물은 질소질. 왕겨, 미강은 탄소질. - 깻묵으로 액비만들기. - 망에 넣어 물에 넣어두면 됨. - 망이 물 위에 뜨면 파리가 알을 낳을 수 있음. 뜨지 않게... - 액비 사용할 때는 물과 10:1로 - 퇴비도 위에 질소질이 보이면 마찬가지. so 마지막에 탄소질로 덮어줘야 벌레가 안 꼬임. - 인분퇴비가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발효를 잘하면 괜찮음. - 탄질비 17:1 - 질소질이 높으면 영양분은 많지만 냄새가 남. - 커피 찌꺼기는 원칙적으로 호기 발효해야 함. 묶어만 놓아도 발효됨. 식초같은 시큰한 냄새가 나고 흰곰팡이가 있으면 잘된 발효, 빨강거나 녹색 곰팡이는 잘못된 것. 		
사진	